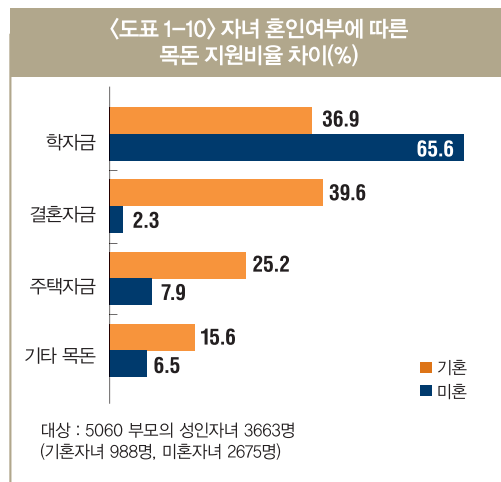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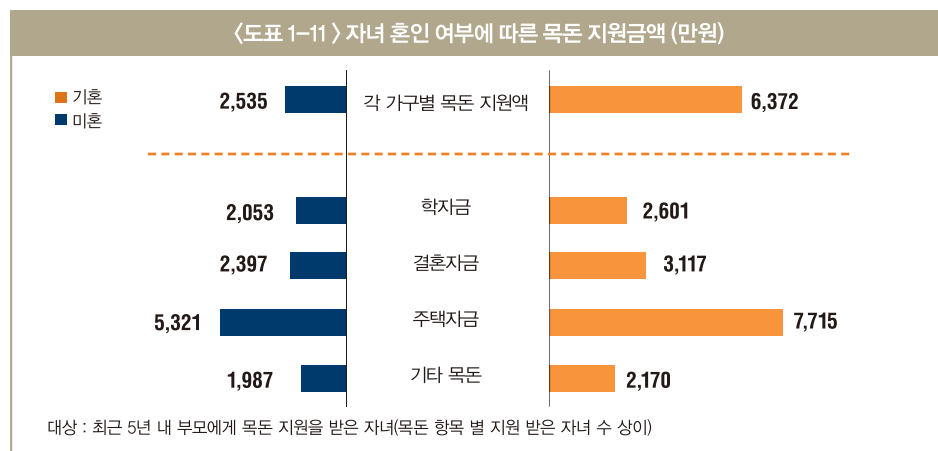
로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결혼한 자녀 다섯 명 중 두 명(남 39.2%, 여 40%)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목돈을 지원 받았다. 결혼한 자녀들은 미혼 자녀에 비해 주택자금이나 기타 자금(사업관련 자금, 출산관련 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도 많다.

“학비하고 용돈하고 주다가, 졸업과 동시에 끊었었죠. 애가 결혼할 때 보니까 돈을 모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혼수하고 집을 할 때 조금 보태줬죠”(김OO, 59세 여)

“부모들 입장에서는 결혼함과 동시에 바이바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면 영원한 레이스다.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백OO, 62세 여)



성인자녀에 대한 목돈 지원은 생활비 지원과 달리 정기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부모들은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늘 준비하고 있다. 5060 부모은행의 애정담보대출은 항상 대기 중이다. 자녀가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까지 묵묵히 바라보며 자녀들이 가장 먼저 찾는 문턱 없는 은행을 자처하고 있다.



최근 5년 내에 기혼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목돈은 평균 6372만원이며, 이는 미혼 자녀들이 받은 지원액(2535만원)의 2.5배 수준이다. 자녀의 결혼이 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아들 결혼 시킬 때 주택자금 해주는 비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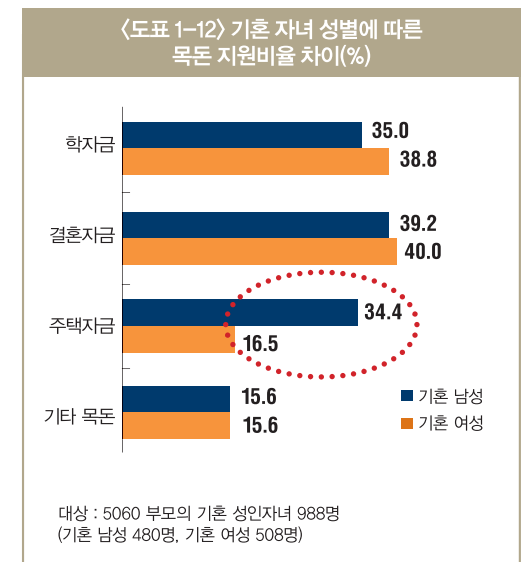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5060 부모의 아들, 딸에 대한 목돈 지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혼 자녀들이 결혼자금을 지원받은 비율에 남녀 차이가 없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차이가 눈에 띄었다. 기혼 남성의 34.4%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기혼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절반(16.5%)에도 미치지 못했다.

“여자는 집값을 도와주는 차원이지만, 남자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 중략 - 제가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것도 거의 아들 집 살 때 반 이상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김OO, 57세 여)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직은 여자가 많이 보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집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들거 같아요. 1억5천, 2억 정도는 생각해야 할거 같아요”(김OO, 59세 여)

불안한 고용환경과 집값 상승의 현실 속에 남녀가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적절히 분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5060 부모의 다수가 여전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의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5060 부모은행은 자녀의 학자금에서 결혼과 주택마련에까지 광범위하게 애정담보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애정담보대출이라 칭한 것은 이 대출이 별다른 담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다. 조사에서도 자녀



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이들 중 자녀에게 준 도움을 나중에 보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7.5%에 불과했다. 부모 자식간 사랑만이 대출의 유일한 담보물이자 상환항목이다.

부모은행의 대출은 비단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다.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기로 유명한 홍콩에서도 젊은 주택구매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 대출기관이 '엄마·아빠 은행'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 내집 마련에 나선 젊은이들이 주택관련 대출 납입금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메릴린치의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미국인 중 성인자녀(만 21세 이상)에게 지난 5년 이내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경우가 68%에 달하며, 이들 중 20%는 주택관련 자금을 지원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4 앞으로 계속 도와줄 계획이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5060 5가구 중 2가구, 향후 자녀지원 계획 있어

5060세대에게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사를 물었다. 앞으로 더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60대(36%)보다는 50대(47.6%)가 향후 성인자녀를 도와주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원 계획이 없는 이들과 비교해 살펴 볼 때, 지원 계획이 있는 그룹은 자녀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편이고, 미혼 자녀가 많으며, 경제활동 중인 자녀가 적었다. 아직 부모들이 부양책임이 남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다.

5060 세대는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이어나가려는 생각일까? 경제적 지원 항목별로 나눠 살펴봤다. 생활비와 학자금의 경우 과거 지원한 비율에 비해 향후에 지원 하겠다는 비율이 낮다. 이미 어느 정도 지원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자금과 주택자금의 경우 과거 지원한 비율보다 향후에 지원하려는 비율이 높다. 50대와 60대를 나누어 보더라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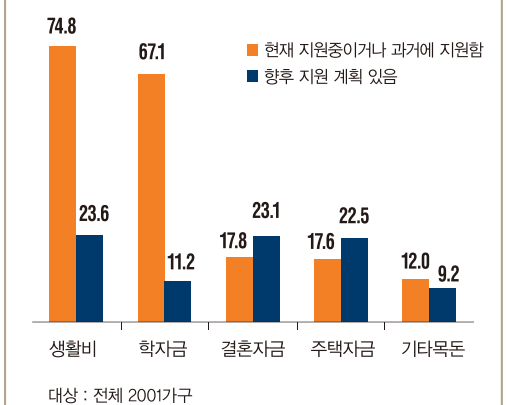
향후 자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억 5162만원의 목돈을 더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생활비는 기존에 77만원을 지원한 데 비해 향후에 75만원을 지원하겠다 하여 큰 차이는 없지만 목돈의 경우 기존에 지원한 금액(5800만원)의 3배 가까운 금액을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 향후 목돈 지원 예상액이 과거 지원한 금액에 비해 큰 것은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가는 결혼자금, 주택자금에 대한 지원이 남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매월 주는 생활비와 같이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일상적인 보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하고 결혼이나 주택마련과 같이 큰 돈이 드는 이벤트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표 1-13〉 향후 성인자녀 지원 계획여부에 따른 집단 특성 차이

		N	향후 자녀지원 계획 없는 집단		향후 자녀지원 계획 있는 집단	
			(명)	(%)	(명)	(%)
전체		2,001	1,142	57.1	859	42.9
연령대	50대	1,200	629	52.4	571	47.6
	60대	801	513	64.0	288	36.0
자녀 평균 연령 (세)		28.3	29.2		27.0	
미혼자녀 수 (명)		1.4	1.4		1.5	
경제활동 자녀 수 (명)		1.2	1.3		1.0	
월 가구소득 (만원)		495	464		536	
금융자산 (만원)		16,984	15,296		19,218	
총자산 (만원)		57,647	51,545		66,001	
과거 성인자녀 경제적 지원 경험률 (%)			80.7		96.4	
과거 성인자녀 생활비 지원액 (만원)			5890		5800	
과거 성인자녀 목돈 지원액 (만원)			70		77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859가구 중 37.7%는 향후 현재 보유 금융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이들 가계는 자녀 지원에 대한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계획대로 자녀에게 지원한다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자산을 털어서 자녀에게 지원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자산을 처분해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

〈도표 1-14〉 경제적 지원 항목 별 지원 경험 및 향후 계획 (%)



〈도표 1-15〉 과거 및 향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액 (만원)

지원항목	가구당 과거 지원액	가구당 향후 지원 예상액
월 생활비 지원	77	75
목돈 지원	5,800	15,162
학자금	3,510	2,770
결혼자금	3,169	6,230
주택자금	7,460	15,721
기타 목돈	1,256	3,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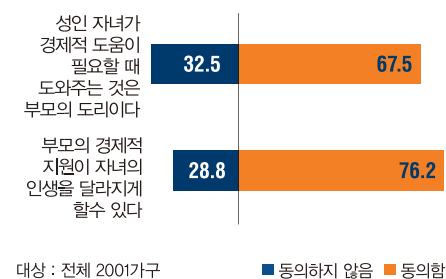
대상 : 향후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859가구(목돈 항목별 지원 의사를 밝힌 가구 수 상이)
 ※ 과거 지원액 및 향후 지원 예상액은 실제 지원했거나 지원의사를 밝힌 가구만의 평균임.

부모의 도리로 지원하지만, 보답은 기대하지 않아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별난 열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고생길을 걸어가게 될 자녀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인지상정 때문이다. 실제로 5060 10명 중 7명(67.5%)은 성인자녀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을 부모의 도리로 여기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이들도 76.2% 나 됐다. 부모가 도와주면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지금도 5060세대가 성인자녀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이자 동력이 되고 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5060 부모의 속내를 들여보았다.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 역시 쉽지 않았지만 그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헤쳐가며 살아야 하는 자녀세대에 대해 느끼는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도표 1-16〉 성인자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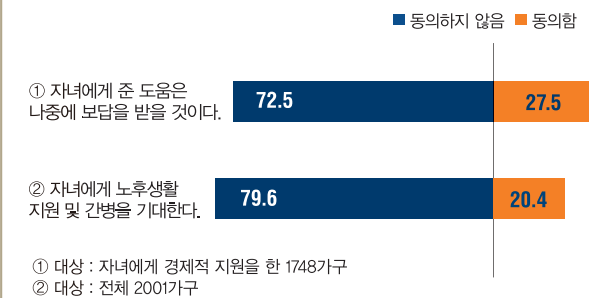
5060세대는 헌신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지만 자녀에게서 보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를 지원해 준 5060 세대 중 ‘자녀에게 준 경제적 도움을 나중 보답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27.5%에 불과했다.

나머지 72.5%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향후 부양을 받으려는 경향도 낮았다. ‘나는 자녀에게 나의 노후생활에 대한 지원이나 간병 받을 것을 기대한다’에 5060 다섯 명 중 한 명(20.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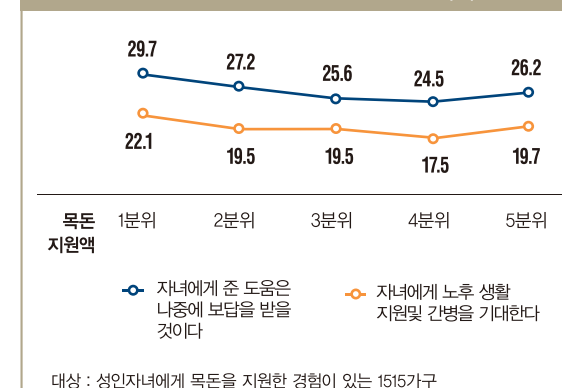
성인자녀에게 지원한 것에 대해 나중 보답을 받으려는 기대의 정도는 그 동안 자녀를 지원해 온 규모와 별 관계가 없다. 성인자녀에게 많은 돈을 지원했음수록 본전을 찾고 싶은 기대 심리가 있을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와 달랐다. 오히려 목돈 지원 금액이 적은 경우(목돈 지원액 1분위) 자녀에게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큰 편이고 지원액이 많다고 해서 보답을 기대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5060 부모들이 성인자녀를 도와 줄 때, 준 만큼 돌려받는 ‘give and take’를 기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녀나 가족에게 노후 경제적 지원이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5060 세대로 하여금 자녀에게 보답을 기대하지 않도록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도표 1-17〉 자녀로부터의 보답에 대한 기대 (%)



〈도표 1-18〉 목돈 지원액 규모별 자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답 기대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의견이 감소해 1998년 89.9% 였던 것이 2014년에는 31.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8.1%에서 16.6%로 증가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도와주면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그렇고요”(홍OO, 62세 여)

“이 아이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것도 넣어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하느거죠.”(강OO, 61세 여)

불평등한 부모-자녀 지원 관계, 재고할 필요도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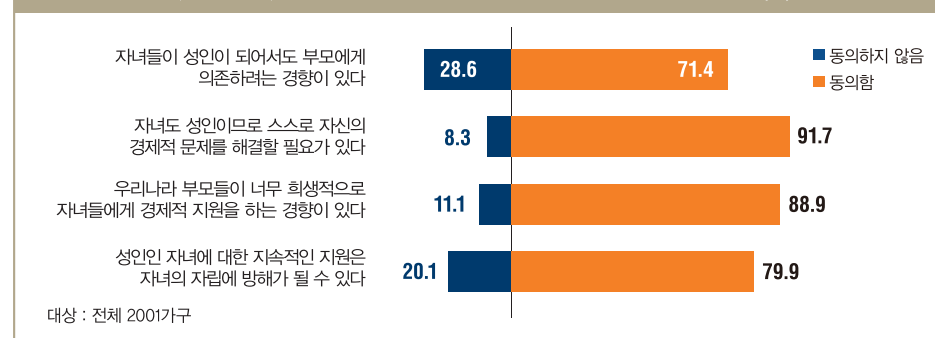
받으려는 마음 없이 주고만 있는 5060 부모, 과연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5060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나친 부모 의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71.4%). 5060 부모 대부분은 자녀들이 성인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91.7%)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자녀들의 의존성 문제만은 아니다. 5060 열에 아홉(88.9%)은 부모들이 너무 희생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자녀가 자립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까 염려하는 이들도 상당수(79.9%)다.

가족학자 이재림(2017)은 우리나라의 부모-성인자녀 관계에서 장기적 호혜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 관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당연히 여겨지는 반면 성인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데 대한 기대가 쇠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립하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지금의 2030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공평하지 않게 유지되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성인자녀에 대한 실망감, 불만 등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성인자녀는 죄책감을 느낄 여지가 있다. 오늘날 5060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녀들의 지나친 의존성을 걱정하기도 한다.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감정의 차이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5060부모의 이타적인 성인자녀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은퇴를 앞둔 5060의 노후 준비보다 우선시 되곤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인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5060 세대 5가구 중 3가구(61.5%)는 노후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8.4%는 '현재 노후 대비가 불충분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노

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지원을 계속할 경우 노후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성이 높다.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성인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토록 잘 살기를 바랐던 자녀에게 도리어 짐이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노후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녀에게 부양의 부담감을 안겨주거나 이와 관련해 자녀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060 부모 스스로 자신들의 앞길을 먼저 점검하고 챙겨봐야 한다.

〈도표 1-19〉 성인자녀 지원에 있어 자녀 및 부모의 태도에 대한 견해 (%)



KEY WORD

2

원격부양



성인이 다 된 자녀들을 지원하느라 상대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했던 오늘날의 5060 세대. 본격적인 노후 생활을 앞두고 느끼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결코 낮설지 않다.

5~60년을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그들의 노부모가 그러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들의 부모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왔다. 먹고 사는 것 만으로도 빠듯해 노후를 위한 저축은 따로 생각하기 어려웠고, 자식농사를 잘 지으면 노후가 편안하리라 내심 기대한 세대다. 이를 알면서도 노부모의 노후를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한편으로는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노부모에 대한 연민과 책임감으로, 5060세대는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1 모시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노부모 동거가구는 열 집 중 한 집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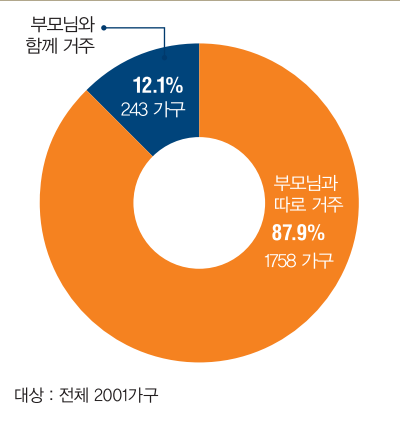
조사 대상 5060 가구 중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경우는 12.1%에 불과하다. 남편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8.3%, 아내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3.6%, 양가부모 모두 모시고 사는 경우가 0.2%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대가족이 사라지고 세대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자리잡은 결과다. 5060 세대의 부모라면 이미 70대 이상일 테지만 아직까지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와 함께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여지도 있다.

현재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살아계시지만 집에 모시고 살지 않는 5060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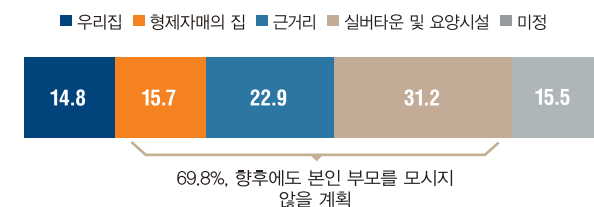
구(1620가구)에게 향후 부모님이 사별하거나 건강 악화로 간병이 필요해 따로 떨어져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거주문제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물었다. 현재 노부모를 모시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는 응답이 14.8%였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에 모시겠다(31.2%)는 의견이다. 자신의 집에 모시지는 않고 근거리에 살게 하겠다는 응답이 22.9%로 그 다음이었다.

종합해보면, 현재 5060 가구 열에 아홉(87.9%)은 현재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며, 이들은 노부모가 혼자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부모님들이 따로 살고 싶어 한다’(26%)거나 ‘살던 지역을 떠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18.2%)이라 답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실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9.5%에 이르며,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 때문’도 16%를 차지했다. 노부모들이 자녀인 5060 세대와 함께 살기를 불편해 하고 5060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거나 생활에서 불편을 느껴 노부모 모시기를 꺼리는 모양새다.

〈도표 2-1〉 현재 노부모와 동거 비율 (%)



〈도표 2-2〉 현재 따로 사는 노부모의 향후 주거 계획 (%)



대상 : 현재 응답자 본인의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1620가구 (부모 돌아가신 경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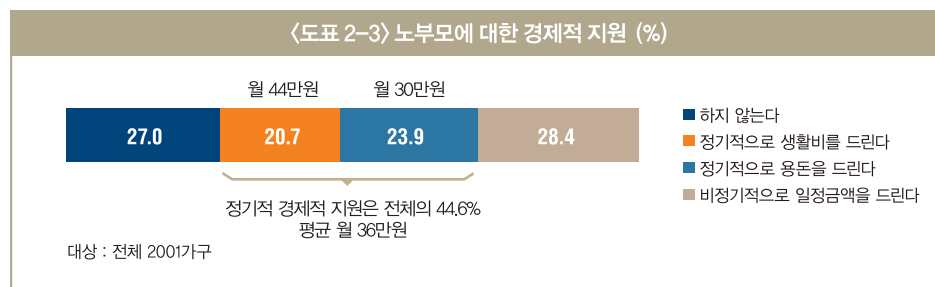
“친정어머니는 혼자 계세요. 아들내외 옆에 있고 딸들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혼자 계시니까 더 편하시대요. 머느리하고 같이 안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김OO, 59세 여)

노부모를 모시지는 않아도 아예 돌보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절충안을 생각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노부모의 근거리에 살거나 형제 자매의 집에 모셔서 자주 오고 가며 필요한 경우에 부양을 하려는 모습이다.

5060세대 44.6%는 노부모에게 매월 36만원 지원

5060 세대는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인 지원은 감당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두 집 중 한 집(44.6%)은 노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드리는 경우도 28.4%로 적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도 50대와 60대 다섯 명 중 세 명 꼴(50대 61.9%, 60대 56.7%)로 부모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060 세대가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노부모의 생활을 지원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5060 가구가 노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평균 월 36만원이다. 생활비를 드린다고 한 경우(월 44만원)가 용돈(월 30만원)을 드린다고 한 경우보다 지원 금액이 크다. 36만원은 노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89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 537만원의 6.8%에 해당한다. 5060 가구 중 성인자녀에게 지원을 하는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지원액인 73만원의 절반 정도다.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은 한 가구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노부모지원은 대개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십시일반으로 생활비를 드려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구 당 지원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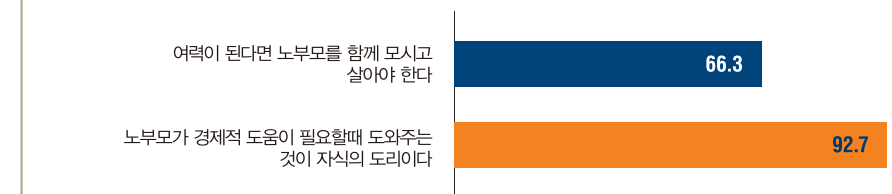
김유경 외(2015)는 부모 부양의 방식을 동거+경제적 자립, 동거+경제적 의존, 별거+경제적 자립, 별거+경제적 의존으로 구분하고, 현재 부모를 부양하는 이들의 연령대별 부양 방식을 살펴본 바 있다. 전체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면서 경제적으로 자립된 방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5060 세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양상이 다소 달랐다. 대체로 5060 세대의 노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50대의 33.7%, 60대의 34.5%는

〈도표 2-4〉 연령대별 부모 부양방식 (%)

구분	동거 + 경제적 자립	동거 + 경제적 의존	별거 + 경제적 자립	별거 + 경제적 의존	기타
전체	20.7	24.8	27.9	23.5	3.1
연령	20~29세	75.0	7.5	17.5	-
	30~39세	34.7	20.2	29.5	15.6
	40~49세	13.4	25.4	34.4	23.3
	50~59세	7.0	31.7	22.5	33.7
	60~64세	10.3	26.2	20.8	34.5

자료 : 김유경 외(2015),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시간 부양분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표 2-5〉 노부모에 부양에 대한 동의 (%)



노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양 방식은 40대 이하에서는 그 비율이 높지 않은데 5060 세대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다. 5060 세대의 노부모 부양 트렌드는 원격, 경제적 지원이라 볼 수 있다.

향후에도 5060 세대의 노부모 부양은 원격, 경제적 부양 중심으로 지속될 것이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5060 세대는 모시고 사는 것과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 둘 다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데 대한 동의율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2 시설간병이 대세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

5060 가구의 72.7%, 노부모 간병 경험 있어

본 조사의 대상이 된 5060 세대 중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6개월이

상 장기간 간병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72.7%에 달한다. 5060 세대에게 노부모 간병은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법하며, 예고 없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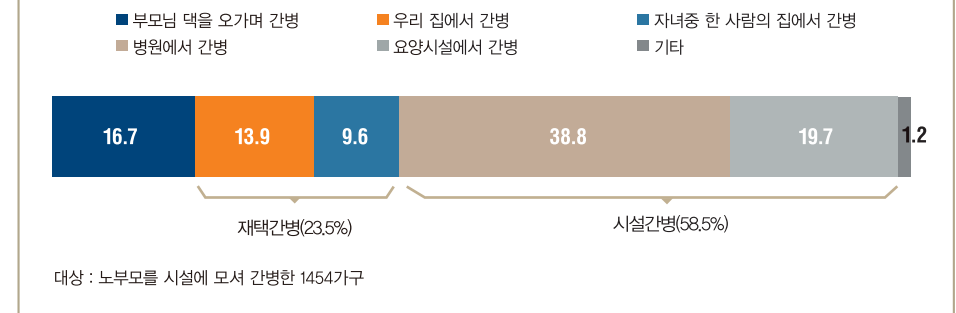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노부모를 간병한 경험에 대해 물었다. 노부모를 간병한 평균 기간은 약 22개월이며, 가장 길게는 최대 15년(180개월)을 간병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2년에 가까운 간병기간은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다. 간병에 소요된 총 비용은 2035만원이며, 평균적으로 각 가계가 부담한 비용은 734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36.1% 수준이다. 노부모 간병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분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용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총 간병비용과 본인 가계가 부담한 간병비용의 중간값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 별 간병비용의 편차가 크며 응답자 중 소수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간병비용을 지출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응답 중에 총 간병비로 1억 8천만원이 들었다는 경우도 있었다. 5060 세대가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노부모 간병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노부모 병환의 종류나 상태의 경중에 따라 간병기간과 의료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만약 한 가구에서 양가(兩家)의 노부모 여러 명을 차례로 또는 동시에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도표 2-6〉 노부모 간병 기간 및 간병 비용 (% , 명)

	평균	최대값	중간값
노부모 간병 기간 (개월)	22	180	12
총 간병비용 (만원)	2,035	18,000	1,000
본인(가계)부담 간병비용 (만원)	734	8,000	300

5060 세대는 노부모를 집에 모셔서 간병하기보다는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위탁하여 간병하고 있다. 노부모를 간병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38.8%는 병원에서 노부모를 돌보았고, 요양시설에서 간병한 경우가 두번째로 많은 19.7% 였다. 부모님 댁을 오가며 간병한 경우가 16.7%였으며, 응답자 본인의 집이나 형제자매의 집에서 노부모를 간병한 경우는 각각 13.9%, 9.6%다. 5060 자녀의 집에 모셔 간병한 경우만 한정해 재택간병이라고 봤을 때, 재택간병이 23.5%이고 전문 시설로 옮겨 간병한 시설간병이 58.5%다. 시설간병이 재택간병의 2배 이상을 차지했다. 아무래도 5060 세대의 노부모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거동이나 씻기 등 일상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거나 병환이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에서 간병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는 가벼운 외병 상태일 때 집에서 간병을 하다가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전문 요양시설이나 병

〈도표 2-7〉 노부모 간병 방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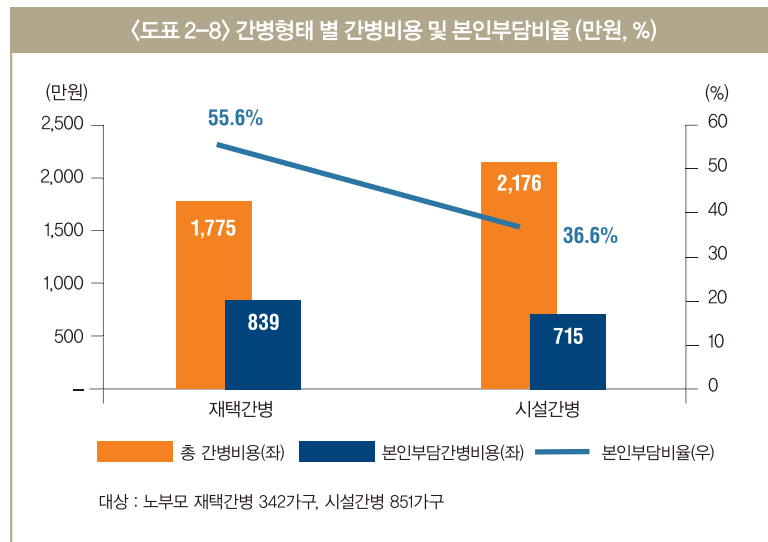
원으로 옮겨 간병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인 규범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도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다. 김유경 외(2015)은 신체적 쇠약 및 질병으로 인해 의존적인 상태에 놓인 노부모를 집에서 부양해야 한다는 규범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맞벌이로 인해 가족 내에서 부양할 사람이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강화되고 가부장적 분위기가 약화되는 추세, 이혼과 재혼 등 가족 관계의 빈번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재택에서 시설로 노부모 간병이 옮겨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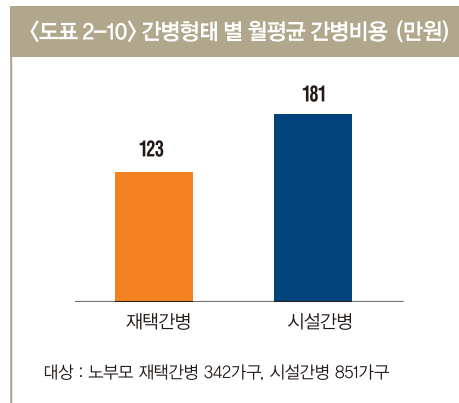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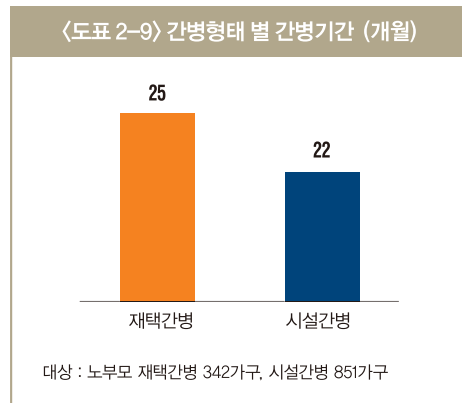
재택간병은 1775만원, 시설간병은 2176만원 들어

노부모를 어떤 방식으로 간병했는지에 따라 5060 세대가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이 다르다. 먼저 비용 측면이다. 재택간병의 경우 간병비용으로 1775만원이 들었다. 이는 2176만원이 소요된 시설간병의 80% 수준이다. 재택간병의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주된 간병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간병인이나 전문 의료 인력이 필요한 시설간병에 비해 표면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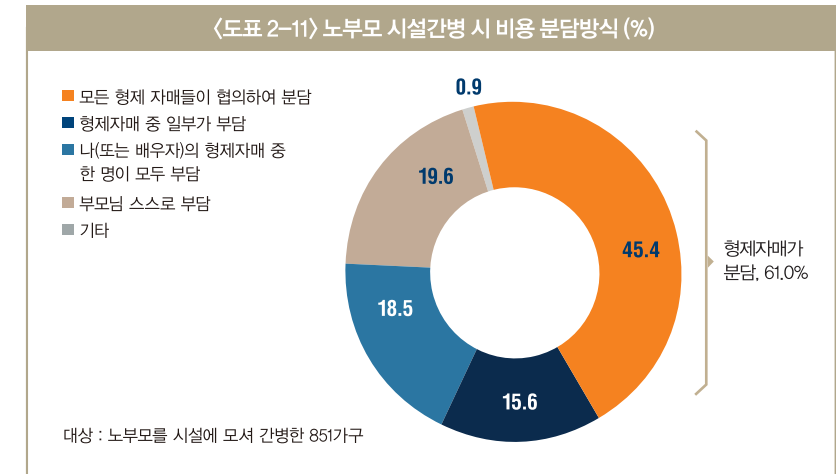
그러나 재택간병 시 응답자 본인(가계)이 낸 간병비 액수는 시설간병(715만원)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많은 839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설에서 간병할 경우 명확한 비용이 산출되고 이를 형제자매 또는 노부모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재택간병의 경우 주된 간병담당자의 노동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로 부모를 간병하는 이들에게 육체적,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재택간병을 했을 경우 간병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율이 55.6% 였으나, 시설간병을 했을 경우 36.6%로 시설 간병을 할 경우 비용 분담이 더 원활한 듯 보인다.



재택간병을 할 때 평균 간병기간은 25개월이었으며, 시설간병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 월 평균 간병비를 계산해보면, 더 짧은 기간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시설간병의 부담이 더 크다. 재택간병의 월평균 간병비는 123만원, 시설간병은 181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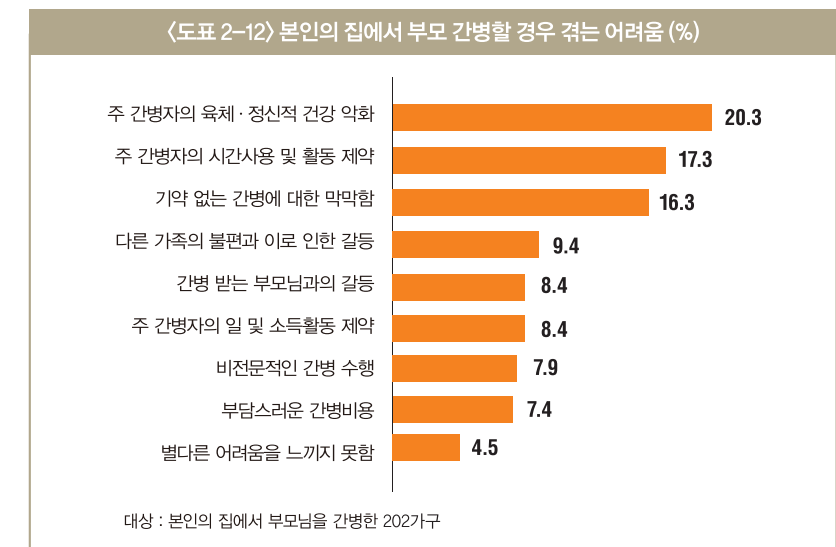
다행히 5060 세대는 많은 경우 노부모 간병비용을 형제자매가 부담하고 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노부모를 모셨던 경우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절반(45.4%)이 '모든 형제자매들이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 했다고 답했고, 형제자매 중 일부가 부담한 경우도 15.6% 다. 자녀들이 비용을 나눠 낸 경우가 61%이며, 어느 한 자녀가 비용을 전담한 경우가 18.5%, 부모님이 스스로 감당한 경우가 19.6%였다.



재택간병의 주 간병자, 스트레스 많고 자유시간 없어

노부모를 어디에서 간병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어려움도 다르다. 집에서 간병했던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된 간병자가 겪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유의 제약에 있다. 24시간 노부모 곁에 붙어 일상을 보조해야 하기에 육체적 피로가 쌓일 뿐 아니라 아픈 사람을 대하며 늘 밝은 정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재택간병 시에 간병 외에 일상적인 가사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간병자는 과중한 일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갖거나 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간병을 계속해야 할 지 예측하기 어려워 기약 없는 간병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노부모를 집에서 간병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해서 요양원에 모셔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까 불쌍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안 가시겠다고 하고.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기약이 없잖아. 막막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더 나빠지면,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중증이 되면 병원에 모시겠다고 그러니까...(답답하죠)
나도 어떻게 늙을지 모르는데...”. (강OO, 61세 여)

집에서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60대 여성의 경우 기약없이 이어지는 간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고, 나아가 자신도 점점 나이가 들고 건강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도 고령의 노인이 되어 부양을 받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더 좋지 않은 노부모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 소위 노노(老老)케어에 대한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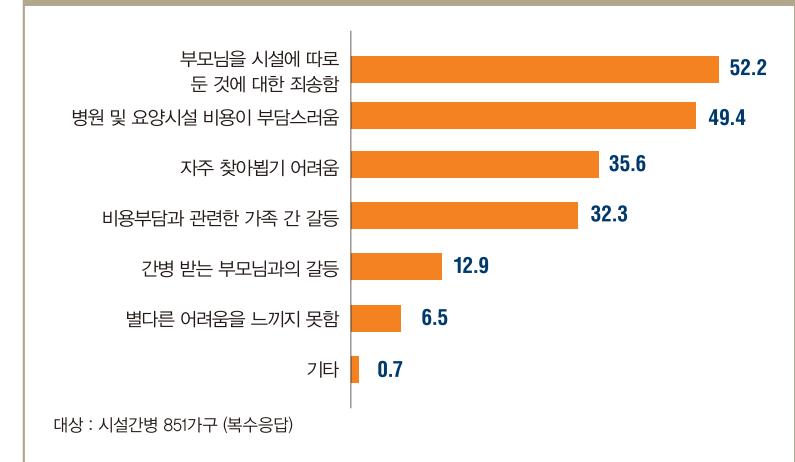
시설간병,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죄송해

한편,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노부모를 모시고 간병하는 경우 경험하는 어려움은 재택간병과는 다소 다르다. 크게 비용과 관련된 부담감과 정신적인 부담감으로 나뉘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듯, 시설간병의 경우 총 간병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수 있다. 노부모를 시설에서 간병한 이들의 절반(49.4%)은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 입원 또는 입소비용 자체도 만만치 않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의도치 않게 비용 부담과 관련해 형제자매, 가족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시설간병에 참여한 열 명 중 세 명 이상(32.3%)이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시설에서 노부모를 간병한 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심리적인 부담감이라 할 수 있다. 부모님을 자신이 직접 모시지 않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홀로 둔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과반 수(52.2%)다. 아직까지 5060 세대의 다수는 여력이 된다면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부모 세대 역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가길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5060은 자신들의 규범적 원칙과 노부모의 의사에 반하게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노부모를

〈도표 2-13〉 시설간병 시 겪는 어려움 (%)



맡기게 됨에 따라 몸은 편할지 몰라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5060이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원격부양’이다. 농경중심 사회에서 자연스러웠던 대가족 체제는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무너지고, 핵가족 체제가 자리잡았다. 5060세대의 어린 시절, 조부모가 자녀, 손주들과 함께 살며 부양과 간병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뿐 아니라 60대는 장성한 자녀들과 손주들의 부양을 받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5060은 부양을 받을 만한 나이에 아직도 노부모를 부양하고 간병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더구나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음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상황에 놓인 5060세대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를 다하되, 현실과 타협하는 방식이 ‘원격부양’은 아닐까.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고 떨어져 지내며 경제적인 지원을 다하는 것, 노부모가 간병이나 일상생활에 보조가 필요할 때 집에서 직접 간병하기보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모시는 것이 갖가지 부양책임과 노후불안에 놓인 5060이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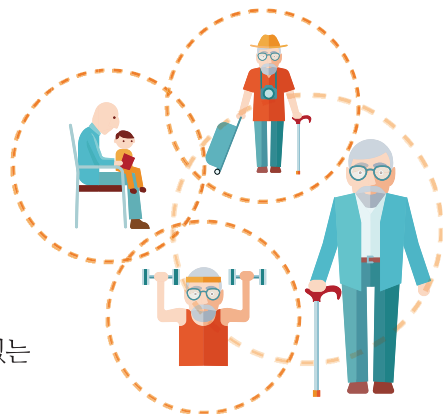
KEY WORD

3 황혼육아

‘손주병’이라는 말이 있다. ‘상사병’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싶어 앓는 병인가 하니, 전혀 다른 뜻이다. 조부모가 어린 손주를 돌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골병’든다는 의미다. 이런 조부모들이 얼마나 많으면 2012년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로 지정까지 했다. 젊은 사람들도 온종일 아이를 돌보다 보면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나이든 조부모는 오죽할까. 아침부터 밤까지 손목, 허리, 무릎 통증에 시달리다 보면 파스와 진통제를 달고 살게 된다. 또 아이와 온종일 붙어 씨름하면서 느끼는 고립감, 육아방식을 놓고 벌어지는 자녀와의 갈등, 노후를 즐길 시간과 여유가 없는 생활로 인해 지치기 십상이다. 그렇지만, 막상 황혼육아를 하며 느끼게 되는 즐거움과 소소한 행복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황혼육아는 5060 세대의 끝나지 않은 가족 부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빠듯한 세상, 남편과 아내 모두 경제활동으로 바쁜 맞벌이 부부는 2016년 기준 전국 530만 쌍에 달한다. 이들의 아이 양육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64%가 조부모·인척에게 자녀를 맡긴다. 황혼육아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돌봄 당사자인 5060은 이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꺼내놓고 있다. 황혼육아의 현실을 짚어보고, 황혼육아가 5060 세대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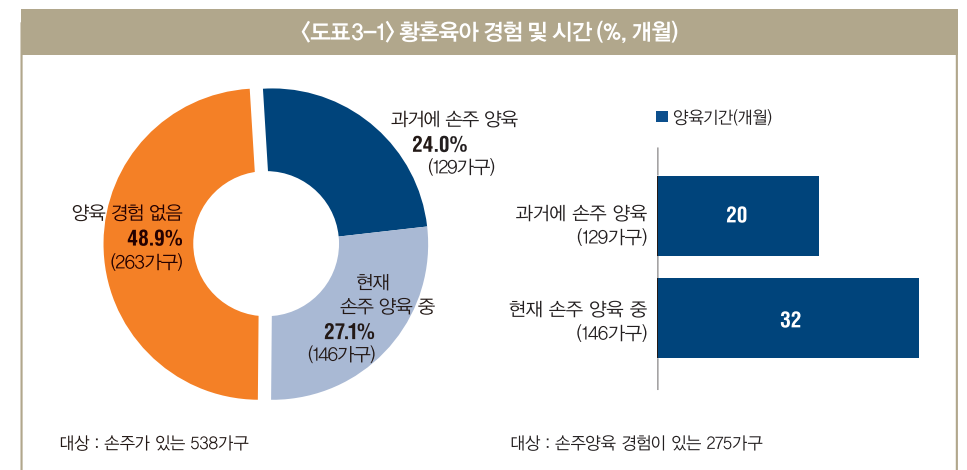


1 손주 둔 5060 절반은 황혼육아 중이거나 경험 있어

현재 황혼육아 중인 가구 32개월째 손주 돌봐

조사 대상인 5060 세대 2001가구 중, 손주를 둔 가구는 538가구다. 조사 결과 538가구 중 절반인 275가구(51.1%)가 손주를 현재 양육하고 있거나, 과거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때 손주 양육은 ‘주 2회 이상 또는 하루 3시간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손주(미취학 아동)를 돌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황혼육아를 경험한 51.1%(275가구) 중 과거에 황혼육아를 했던 가구가 24%(129가구), 현재 진행형인 가구가 27.1%(146가구)다. 과거 황혼육아를 한 가구는 평균 20개월간 아이를 돌봤고, 현재 진행형인 가구는 평균 32개월째 아이를 돌보고 있다. 황혼육아가 조부모 삶의 일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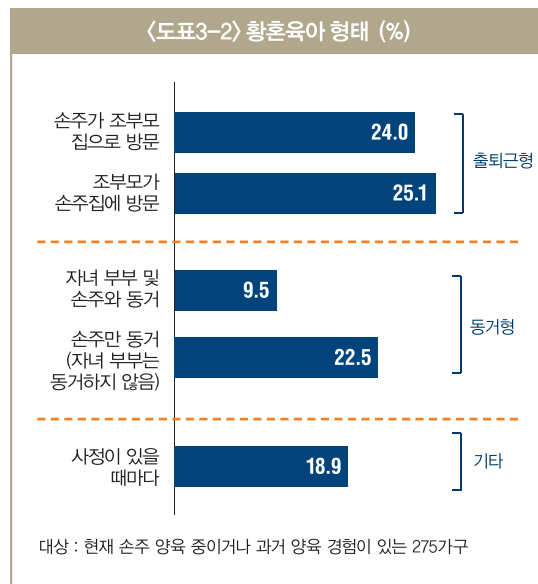


황혼육아 방법은 ‘출퇴근’이 절반

황혼육아를 했거나 하고 있는 275가구를 대상으로 황혼육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다. 본인이나 손자녀가 서로의 집으로 오가는 ‘육아 출퇴근’이 대략 절반 정도다. 조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집에 방문해 손주를 돌보는 비율이 25.1%, 손주가 자신의 집으로 온다는 비율이 24%다. 출퇴근이 쉬워지면 두 집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조부모 부부와 자녀 부부가 손주 양육을 위해 한 동네에 거주하는 ‘신 3대 가족’이 탄생하는 계기다. 이들은 가깝게는 동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거나, 같은 라인의 위·아랫집에 각각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는 세대별 거주공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편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육아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심층 인터뷰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러한 선호가 나타난다.

“딸애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이상적으로 같은 아파트나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서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좋은데...”(오OO, 56세 여)



두 집 사이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손주만 조부모의 집으로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 자녀 부부 없이 손주만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답한 세대가 22.5%에 달한다. 육아를 위해 아예 조부모의 집으로 돌아온 ‘리터루족(族)’도 있다. 리터루족이란 ‘돌아가다(return)’와 ‘깡거루족’의 합성어로 결혼 후 독립했다가 높은 집값과 육아 문제 등으로 다시 부모님 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 황혼육아가

구 열 집 중 한 집(9.5%)은 자녀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를 맡아 돌본다. 육아 문제가 가족의 거주 행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 체력적 부담은 크지만 대가는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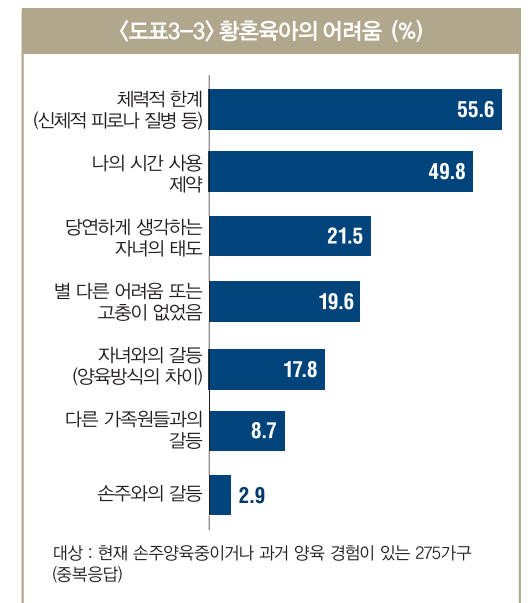
손주를 돌보며 제일 힘든 건 ‘체력적 한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면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어려움은 ‘예전 같지 않은 몸’이다. 황혼육아를 경험한 이들에게 손주를 돌보면서 느낀 어려움을 물었더니 1위는 체력적 한계(55.6%, 중복응답)로 나타났다. 특히 관절이나 디스크 등이 약해진 조부모들에게 5~10kg이 나가는 손

주를 수시로 안거나 업어주는 일은 큰 부담이다. 아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와 손목에 부담을 줘 디스크나 건초염 등 통증이 생긴다. 또 아이를 안고 일어설 때는 무릎관절이나 고관절에 무리가 간다. 때문에 영유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허리 통증은 물론 손목터널 증후군, 퇴행성관절염 등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참여자는 황혼육아의 힘들음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한 두 번, 어쩌다 봐주면 상관없지만 매일 가져귀 같고, 들었다 놔다 하니까 이게 운동을 안했던 근육은 근력이 약해서 인대가 나가더라고... 노인네들이 얘기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홍OO, 62세 여)

스트레스로 심장 등 신체적 질환이나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03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4년 간 일주일에 9시간 이상 손주를 돌본 60세 전후 노인 1만 여명을 조사했더니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해 심장병 발병율이 55%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 나이와 함께 심혈관계에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인들이 육아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육체피로에 노출되면 호르몬 작용으로 쉽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시카고 대학교의 아동연구센터



의 200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5명 중 4명(79%)이 건강 문제를 호소했으며, 3명 중 1명은 우울 증상을 느꼈다. 실제 황혼육아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서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다. 시간이 나질 않으니 취미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림의 떡이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산후우울증 못지않은 ‘황혼육아우울증’이란 말이 퍼질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때문일까, 2013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노인들이 가장 원치 않는 노후생활은 ‘손자녀 양육’이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 노후에 손자녀 양육을